

#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옥내 노후 급수관 개선 절실”

## 장수군, 폭염대책 TF팀 구성 대응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나서

장수군이 장마 이후 시작되는 폭염으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27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4월 2023년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실시간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고, △폭염 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

약계층·시설 특별 관리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무더위 쉼터 26개소를 정비하고, 장수읍과 계북면에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다.

또한 번안면에 그린 통합 쉼터를 조성했으며, 재해취약계층에 여름이불 800채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특고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 지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활용 폭염대비 건강관리 △여름철 살수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폭염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창용 안전재난과장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적극 협력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종주)는 장수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수군 지역 내 장애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취업을 위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역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양종주)는 장수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공단과 연계하여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육성 국비 공모

무주군이 오는 8월 3일까지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국비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은 원료 농산물과 완제품(Business to Consumer)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usiness to Business)하는 것으로, 농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

한다.

대상은 생산자 단체(농협·농업법인 등)와 식품기업 등으로, 이들 단체 또는 기업이 설계 및 감리, 건축공사를 비롯해 선별·포장·가공·유통 장비 등 식품소재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곳당 사업비 7억 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푸드플랜팅 김도환 팀장은 “식품소재 분야 중소식품기업을 육성하고 국산 식품 소재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 신청은 무주군 푸드플랜팅 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도 심사를 거쳐 농축산식품부의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의회 이투라 의원, 대책 마련 촉구

진안군의회의회(의장 김민규) 이투라 의원은(선거구)은 27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내 노후 급수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설치된 지 15년 이상 지난 아연도 강관과 동관의 경우 내부 부식이 심해 탁도나, 색도, 철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2000년 이전 준공된 건물이나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건물은 노후화 및 부식,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교체 등 관리가 절



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건물과 가정 내의 수도관은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 급수관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군에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우리 군도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여 주민 물 복지 실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 생명존중문화 조성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대학 재학생 대상 실시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사회복지법인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제7기 사회복지대학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생명존중재단에서 개발 및 보급하는 프로그램인 ‘이어줍인’으로 진행했다.

‘이어줍인’은 자살의 위험 요인, 자살 신호 및 자살예방 도움말, 자살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우울증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앞으로도 노년기 우울감을 느끼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사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생명지킴이 교육 외에도 중증 우울 예방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도움기관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송미경 센터장은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진안군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전북도·산림청, 산사태 대비 안전점검 나서

진안군은 27일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주택침수, 산사태 피해가 잇따른 산림청, 전라북도와 함께 산사태 취약지역을 방문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대비상황 점검에는 김종필 부군수, 남성현 산림청장,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등이 나서 백운면 백암리 국립지적권 산림치유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호우대비 산사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예방시설 사방사업장 상태를 점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우려가 높고 전국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사태 위험징후 시 긴급재난 문자, 마을방송, 유선연락, 방문 등을 통해 위험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김종필 부군수는 “산사태 취약 지역 2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사방댐 등 32개소의 사방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며 “산사태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실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 누락된 지역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진안군은 27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중 진행되는 답례품 공모와 기부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자체 발굴을 통해 농산물 1개 품목(개)과 체험권 2개 품목(숙박시설 이용권, 별초대행 이용권) 총 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이번엔 추가 선정된 3개 품목과 지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중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갑 위원장은 “앞으로도 답례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부자 선호도 파악을 통해 진안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스마트팜 오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앞장

진안군은 27일 산간 고원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맞는 간편형 스마트팜을 활용한 여름 오이 시범재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기후에 오이의 정밀관수를 활용해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전에 하우스 토경재배는 스마트팜과 같은 정밀관수, 복합환경제어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오이는 수분요구량이 매우 많고 생장속도가 매우 빨라 아침과 저녁에도 수확해야 하는 작물이기에 정밀한 양·수분 관리를 통한 영양생리장해(질소, 칼슘, 칼리 결핍과 과잉 등)를 개선해 곱과(구부러진 오이), 잘록과 등 기형과의 발생을 낮추어 상품성 있는 오이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더 많은 관리가 필요했다.

진안군은 이러한 문제점과 특성을 감안해 토경재배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의 하나인 양액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밀한 양·수분 관리와 차광시설을 활용해 품질이 우수한 오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도 실시하고 있어 양질의 오이를 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